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본원	직 위	연구위원	성 명	이선주
출장기간	2007. 12.5-12.10		출장지	당 초 변 경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장목적	- 전지구화시대의 다문화사회에 관한 논의와 연구 동향 파악 - 오스트리아의 Research Institute for Regional and Transnational Cultural Sciences가 주체하는 국제학술대회인 'knowledge, creativity and transformations of socialities' 에서 본원의 협동과제의 소과제 중 하나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수용성 연구'의 일부결과를 발표					
경비부담	2,622,100 원(과제비 부담)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문기관 / 면담자				논의사항		
Dr D. Azimova, UWED 우즈베키탄 교수 D. Abdigapparove, Europa-Institute (독일) 변호사 이상경, University Wien(오스트리아) 교수 Dr. B. Mooney,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교수 Dr B. Cullen, Queen's University(북아일랜드) 교수				-전지구화시대의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점 -전지구화 시대의 중앙아시아 여성들의 국제이주와 그 문제점 -러시아의 이주관련 법의 변화와 그것이 다른 CIS국가에 미치는 영향 -유럽문학과 문화에서 나타나는 이주문제 -인종/민족, 종교의 차이로 나타나는 집단 정체성 문제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07. 12. 24.

출 장 복 명 자 : 이선주 연구위원

#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Knowledge, Creativity and  
Transformation of Societies Conference  
발표 및 참석

2007. 12. 24.

보고자 : 이선주  
(평등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본문>

1. 회의명 : Knowledge, Creativity and Transformations of Societies (KCTOS)

2. 회의배경 및 목적

- 가. KCTOS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수용성 연구’의 일부결과를 발표
- 나. 전지구화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국제이주의 동향 파악
- 다. 이주관련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 형성

3. 참가자 규모 : 1명

본원의 이선주 연구위원

4. 회의일정

일 시	내 용
12/5(수)	인천 출발(13:25), 비엔나 도착(16:55)
12/6(목)	등록 및 시티투어
12/7(금)	- Knowledge, Creativity and Transformation of Societies: 오스트리아 연방 장관의 개회식 주관 -Issues of labour migration in East A남 and Post-Soviet Central Asia 섹션 참가
12/8(토)	New Multi-society and Cultural Integration in Asia and Europe 섹션에서 발표 및 토론
12/9(일)	- Rationality, Incommensurable Moralities and Strategies for Existential Communication 섹션 참가 -비엔나 출발(18:30)
12/10(월)	서울 도착(12:35)

5. 주요내용

가. 중앙아시아에서의 국제이주 문제

-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이후 지난 15년간 노동이주가 중앙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선진국과 달리 중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자녀를 많이 출산하여 농촌지역에서 잉여 노동력을 창출하였음. 현재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의 인구는 총 3천백만명을 넘으며, 이중의 50%가 노동할 수 있는 연령대임.
-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법에 준하지 않고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국제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법에 준하지 않고 이주하는 경우는 ① 학생비

자나 여행자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 ②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주하지만, 이들은 성매매, 노예, 인신매매 등으로 강제노동에 동원 ③ 마피아와 같은 범죄조직에서의 활동 등이 있음

-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이주형태는 소위 일자리찾기(job-hunting)임. 실업이 높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계절노동(seasonal work)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으로 단기간 이주를 함. 중앙아시아의 단기 노동이주자 중 75%가 러시아에서 일하고 다른 CIS 국가에 25%에서 일함. 이들은 대체로 봄부터 가을까지 건설업이나 집수리와 같은 일에 종사함. 21세기 여성의 이주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이들은 가정을 떠나서 외국에서 일함으로써 아동교육과 건강보험 등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이주문제는 중앙아시아에서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매년 안보상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국을 떠나고 있음. 중앙아시아인들의 이주의 주된 동기는 고임과 더 나은 삶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임.
- 러시아연방국과 카자흐스탄은 노동이주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들임. 현재의 러시아의 인구 상황을 살펴보면, 인구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 연방정부는 2006년 11월부터 Decree Nr 682를 발효하여 비자 없이 러시아에 올 수 있는 국가의 사람들에게 주는 노동허가의 할당을 증가하였음.
- 그러나 많은 노동이주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조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이들 이주자들의 고용조건은 어쩌면 자신들의 출신국의 고용조건보다는 나을지는 모르지만, 이들을 수용한 국가의 자국민들의 노동조건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것임.
- EU에서는 이 지역의 이주문제가 개발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EU와 중앙아시아: 새로운 파트너십전략'은 이주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주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할 것을 밝히고 있음.

#### 나. 새로운 다사회와 문화적 통합: 이주와 문화적 다양성

- 전지구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경을 횡단하는 노동자들의 이주가 광범위하게 나타남.
- 이주자들은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까지 그 이주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이주자들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까지도 요구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단순히 이주노동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임. 독일에서는 1960년대 후반 게스트워커를 들여와서 노동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1980년대 후반에 독일은 이들 이주노동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전진은 명치시대에서 찾을 수 있음. 명치시대는 일본이 전지구적 체계(global system)로 포함되도록 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시대임. 명치시대에 서양 문물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민족의식의 한층 고조된 시기임. 1899년에 외국인과 일본이 함께 거주하도록 한 내지잡거가 외국인 노동력을 유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엿보였음. 최근

내지잡거는 일본이 인종으로 이루어진 단일민족을 이루고, 순수하게 하나의 문화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증폭시키고 있음.

- 국제이주는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십 세기 동안 발생한 것임. 한국의 디아스포라도 이미 18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고, 일제시대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 한국인들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만이 아니라 구소련지역인 중앙아시아에도 이들은 세대를 이어 그곳에서 광범위하게 정착하고 거주하고 있음.
- 러시아로 이주한 한국인 조부모와 부모에서 출생한 아나톨리 김은 러시아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존경 받는 작가임. 이 작가는 이주가족에서 출생하였지만, 러시아교육을 받고 러시아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써 정체성을 갈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갈등을 승화하여 자신만의 창조성을 발휘하여 러시아 문학에서 영향력 있는 작가로서 자리를 잡음.

## 6. 참가자 역할

- 협동과제의 소과제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수용성 연구”의 일부결과를 ‘ways of thinking about foreign bride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이 연구결과에 토론을 함.
- 다문화 사회와 이주에 관한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는 이주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컨퍼런스였음.
- 이주관련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기관의 연구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함.

## 7. 평가 및 제언

- 전지구화시대는 국제이주 문제가 단순히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임.
- 국내에서는 이주문제를 여성결혼이주자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노동이주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를 다루고 있음.
- 국제이주는 단순히 이주자의 단순한 이동이 아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종교, 언어, 관습 등이 함께 이동하는 것인 만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이 증가하여야 할 것임. 특히 이들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의제가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히 인구학적인 변동에 의해 서로 다른 인종/민족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제도와 의식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임.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8. 수집자료 목록

- 관련 발표 논문은 차후 <http://www.inst.at/kctos/>의 컨퍼런스 자료에 올라올 것임.

9. 참가자 리스트, 관련기관 및 인사 리스트(이름, 기관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등)

▣ 출장 일정

날짜	방문기관	관련 인사
12/7 (금)	-Knowledge, Creativity and Transformation of Societies: 오스트리아 연방 장관의 개최식 주관 -Issues of labour migration in East A남 and Post-Soviet Central Asia 섹션 참가	KCTOS 주체자들의 인사 및 환영사  -Dr D. Azimova, UWED 우스베키탄 교수 이메일:dinora.azimova@gmail.com -D. Abdigapparove, Europa-Institute (독일) 변호사 이메일:davron19@yahoo.com
12/8 (토)	New Multi-society and Cultural Integration in Asia and Europe 섹션에서 발표 및 토론	-이상경, University Wien(오스트리아) 교수 +43-1-911-7658 -김현택,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메일: <a href="mailto:khyuntaek@hufs.ac.kr">khyuntaek@hufs.ac.kr</a> -표세만 군산대 교수 이메일:semanpyo@kunsan.ac.kr
12/9 (일)	Rationality, Incommensurable Moralities and Strategies for Existential Communication 섹션 참가	-Dr. B. Mooney,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교수 이메일:brianmooney@smu.edu.sg  -Dr B. Cullen, Queen’s University(북아일랜드) 수 이메일: b.cullen@qub.ac.uk